

연예인과 '마약'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류 복용 혐의로 하루가 멀다 하고 구속되고 있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지난해 연말 텔런트 황수정씨가 구속된 이후에도 엽기 가수 싸이, 심신, 텔런트 정찬씨 등이 잇따라 히로뽕 투약과 대마초 흡입 혐의로 적발되면서 연예계가 마치 별 집 쭉셔놓은 것처럼 술렁이고 있다.

올 들어서도 최근 미스 코리아 출신 텔런트 성현아씨가 엑스터시 상습 복용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연예인 환각제 복용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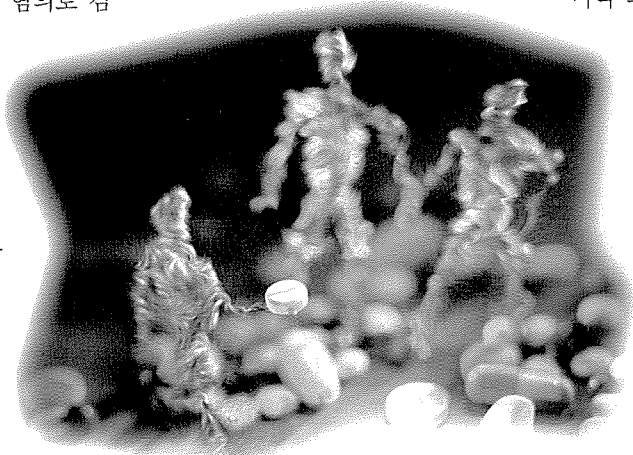
미국, 영국, 독일 등 외국에서 젊은이들이 광범위하게 복용해 사회문제가 된 엑스터시는 1999년 처음 국내 유통 사실이 확인된 초강력 신종 마약으로 속칭 '도리도리'로 불리운다.

엑스터시가 인기를 끌게 된 것은 알약이기 때문에 복용이 간편하다는 측면도 있지만 복용여부가 소변검사를 통해서만 감식이 가능한데다 소변 감식의 경우 마약 잔존 기간이 3~4일에 불과해 수사당국에 꼬리를 잡힐 염려가 거의 없다는 이유가 컸다. 그러니까 한알당 가격이 8만원에 달하는 고가인데도 '엑스터시는 먹어도 안 걸린다'는 소문이 일부 연예인을 중심으로 널리 유포돼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올들어 대검찰청 마약 감시실이 국내 최초

로 모발 감식 기법을 개발해 이같은 맹신은 곧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머리카락이나 체모등을 이용한 모발 감식기법은 엑스터시 복용사실을 최소 6개월 후, 길게는 수년 후에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인기 댄스그룹 코요테 멤버 김구씨와 텔런트 성현아씨의 경우 소변검사 결과 엑스터시 음성반응이 나와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결국 모발 감식으로 마약 복용 사실이 들통났다.



국내로 유입되는 엑스터시의 대부분은 네덜란드 산이다.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엑스터시 생산지로, 여기에서 생산되는 상당량이 항공 화물이나 특급우편을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며 이 물량 가운데 일부가 주한 미군

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국내 공급원은 홍콩과 동남아 등을 왕래하는 보따리상들로, 이들과 주한 미군이 국내 유통량의 80~90%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수사 당국은 보고 있다.

엑스터시는 최근 강남이나 대학가 등지의 테크노바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특히 히로뽕은 빈곤층과 중·장년층 등이 주요 수요층인데 반해 엑스터시는 연예인과 대학생, 학원강사, 회사원등 고학력층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 신촌일대 클럽가운데 언더 그룹들의 공연이 성업을 이루는 D, N, M 바 등에서 일명 '어펙셀러'로 불리는 엑스터시 판매책들이 대학생들을 상대로 엑스터시를 팔고 있다. 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학동 일대의 일부 콜라텍의 경우 방학때 귀국한 조기 유학생들이 고교생들에게 엑스터시를 판매하는 사례도 있다.

이밖에 논현동과 도산공원 부근의 일부 찜질방에서는 해외 교포들이 '피로회복제' 또는 '살빼는 약'이라며 엑스터시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엑스터시의 국내 밀반입을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엑스터시가 알약 형태로 제조돼 일반 알약과 형태가 별로 다르지 않고 휴대도 간편하기 때문이다.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아 잘 훈련된 마약 전 조차 엑스터시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소규모로 반입할 경우 사전정보 없이는 적발하기가 어려운데 현실이다.

그렇다면 연예인들은 왜 마약에 빠져드는 것일까. "마약 공급자들의 활동무대인 유흥업소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고 마약을 하면 예술성이 향상된다는 그릇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남의 눈을 의식해야 하는 연예인들은 몇몇 업소를 정해놓고 자기들끼리 어울리는데 이 과정에서 알게된 유흥업소 사장이나 마약 공급자의 꾀에 빠져들기 쉽다.

'피로 회복제' 따위 명목으로 내민 약을 무심코 받아 먹었다가 중독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예인들이 마약을 탐닉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인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

박 관념과 실패에 대한 스트레스를 우선 꼽고 있다.

몸이 아무리 아프고 피곤해도 팬 앞에서 항상 웃는 얼굴로 화려하게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하는 이중적인 생활을 장기간 하다보면 남이 보지않는 곳에서 마약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그래서 연예인들 사이에서는 '마약은 연예인들에게 필요악'이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의 연예인 마약 복용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마약을 복용한 연예인들 대부분이 텔런트나 댄스 가수로 창작의 고통을 잊기 위한 것이라고 보다는 일순간의 쾌락을 위해 마약을 복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연예인들이 일으키고 있는 마약 사건의 해악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것은 연예인들이 수많은 청소년들의 우상이라는 점에서 모방 범죄가 뒤따르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연예인은 유행의 최첨단을 걷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청소년들에게 일종의 멋으로 보이고 모방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때문에 연예인의 마약복용은 일반인보다 훨씬 더 큰 해악을 남겨준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연예계 스타들에게도 일반인과 똑같이 자신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부와 명성 만큼이나 연예인들에게 최소한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들을 가장 동경하고 주시하는 대상이 다름아닌 우리 청소년들이기 때문이다. ■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스타들도 일반인과 똑같이 자신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부와 명성 만큼이나 연예인들에게 최소한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들을 가장 동경하고 주시하는 대상이 다름아닌 우리 청소년들이기 때문이다.



이광호 · KBS 해설위원